



# TOGETHER HA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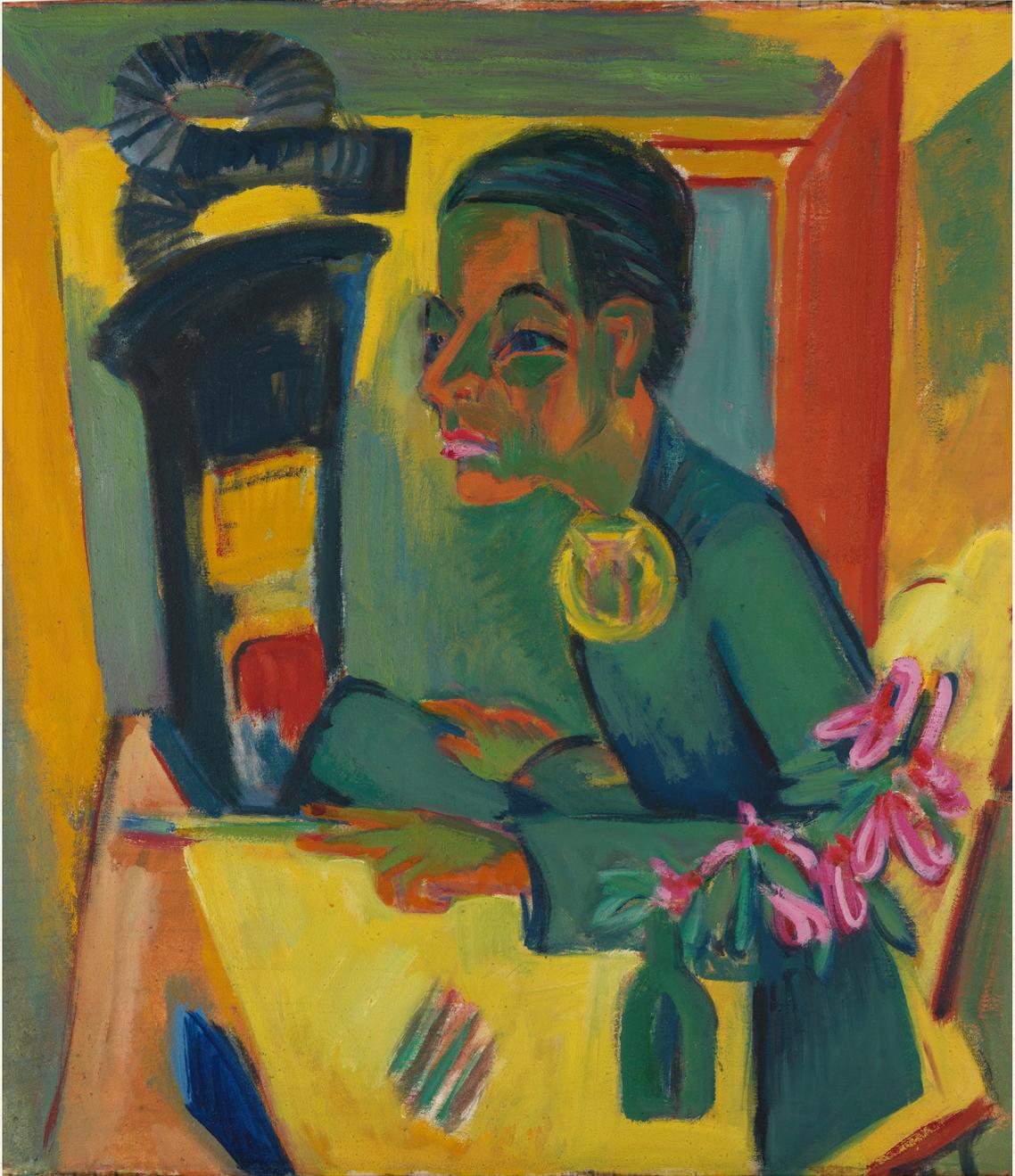
March

2026

Vol

238

**표현주의** 정서적 효과를 위하여 색채와 형태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미술을 가리키는 미술사조



## 화가(자화상)

Der Maler (Selbstbildnis)

### 에른스트 루트비히 키르히너 Ernst Ludwig Kirchner

키르히너(1880~1938)는 독일 표현주의 그룹 다리파(Die Brücke)의 창립 멤버로, 급격히 변화하는 도시 속 인간의 불안과 소외를 강렬한 색과 왜곡된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도시 풍경과 인물을 통해 현대 사회의 긴장감과 심리적 불안을 날카롭게 드러낸 화가입니다.

02	기획포커스 표현주의	16	전국 닭 요리 대전 태백식당
04	트렌드 리포트 식탁의 미래가 바뀌다	18	MZ 생각
06	농가 탐방 대지농장(진안)	19	칭찬 릴레이
08	하림 뉴스 2026년 2월	20	비즈니스 잉글리쉬
13	신제품 이야기	21	직장생활 꿀팁.zip
14	하림인 이야기 하림인이 봄을 기다리는 방법	22	눈으로 보는 하림
		23	승진을 축하합니다 이달의 퀴즈

*Date of Issue*  
2026년 3월 1일

*Publish*  
(주) 하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 뒤집힌 식탁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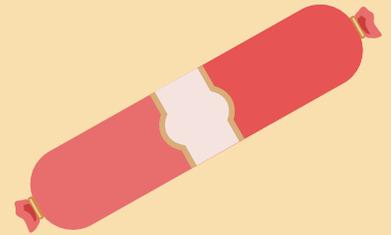
## - 문제는 '초가공식품'이다.



DGA(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란 미국 정부가 1980년부터 5년마다 발표하는 국가 공식 식생활 지침으로, 학교 급식부터 군대 식단까지 미국의 모든 영양 정책을 결정하며 전 세계 식품 트렌드의 기준이 되는 식탁의 헌법과도 같은 존재다.

지난 1월, 바로 이 DGA의 새로운 가이드라인(2025~2030년)이 발표되며 글로벌 식품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이번 발표는 지난 40여 년간 정설처럼 여겨지던 저지방 및 식물성 식단 위주의 권고안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핵심은 명확했다. 건강한 동물성 지방은 먹어도 좋다. 다만,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s)과 설탕은 식탁에서 치워라.



이번 가이드라인이 던진 가장 큰 화두는 건강의 적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삼겹살의 비계나 버터가 심혈관 질환의 주범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은 오히려 공장에서 고도로 정제된 식물성 씨앗 기름(Seed Oil)이나, 지방을 뺀 자리에 설탕과 화학 첨가물을 채워 넣은 가공식품들이 대사 건강을 망치는 진짜 원인을 지적했다. 지방을 피하려다 오히려 설탕과 가공식품의 늪에 빠져버린 현대인의 식단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결국 이번 발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숫자보다 과정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칼로리가 낮고 지방이 몇 퍼센트인지 따지는 영양소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따져야 할 때다. 이름조차 생소한 성분들로 채워진 초가공식품 대신, 투박하더라도 원재료의 형태가 살아있는 진짜 음식, 즉 홀 푸드(Whole Food)로의 회귀가 강조되는 이유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원재료의 가치를 온전히 품은 닭고기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닭고기는 근육 합성에 필수적인 아미노산인 류신을 풍부하게 함유해, 지방 부담 없이 균형 잡힌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최적의 식재료다. 가공을 최소화한 진짜 음식이 식탁의 중심으로 떠오른 지금, 닭고기는 단순한 다이어트 식품을 넘어 대사 건강과 근육 관리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실질적인 단백질 솔루션인 셈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이 가이드라인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무조건적으로 가공식품을 배척하거나 유행을 좇기보다는, 홀 푸드의 가치를 중심으로 두면서도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균형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맹목적인 수용이 아닌 주체적인 선택과 판단.

그것이야말로 2026년, 우리가 맞이할 가장 건강하고 현명한 식탁의 미래일 것이다.



## 진안 대지농장

“생명을 귀하게, 기본을 단단하게” 2대가 함께 쓰는 농장의 역사



물 맑고 공기 좋은 전북 진안, 이곳에는 30년 넘게 하림과 동행하며 육계 산업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곳이 있다. 바로 이광택(하림 농가협의회 회장) 대표와 그의 아들 이상규(53) 대표가 함께 꾸려가는 ‘대지농장’이다.

▶ 이상규 대표

▶ 이광택 대표

**Q1. '대지농장' 소개와 2세 경영을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대지농장은 “큰 땅에서 크게 시작해 보자”는 아버지(이광택 회장)의 포부가 담긴 이름입니다. 아버지는 우체국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 1993년 진안에 터를 잡고 육계 사육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던 치과기공사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아버지께서 다치시는 사고가 생기면서 농장 운영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제안으로 합류하게 되었고, 어느덧 13년 차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총 6동 규모에 약 10만 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후화된 3개 동을 허물고 작업 효율이 좋은 신축 2개 동으로 재정비하여, 오는 3월 새로운 병아리 입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Q2.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농장에 나와 사계가 없는지 살피고 시설을 점검합니다. 저희 농장은 완전 자동화 대신 환기 등을 수동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몸은 조금 고되고 번거롭지만, 수동으로 조절하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더 닭들의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닭의 울음소리, 움직임, 공기의 흐름을 기계가 아닌 제 오감으로 체크하는 것이 건강한 닭을 키우는 비결입니다.

**Q3. 하림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파트너로서 느끼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처음 시작하실 때, 이미 육계 사육을 하던 동네 주민의 강력한 추천으로 하림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림은 체계적인 사육 시스템과 방대한 데이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저처럼 다른 분야에 있던 사람도 전문적인 육계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농가와 회사가 상생하려는 의지가 강해 믿고 갈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Q4. 건강하고 품질 좋은 닭을 키워내는 대지농장만의 노하우가 있다면요?**

첫째도 환기, 둘째도 환기입니다. 연료비가 많이 들더라도 환기만큼은 아끼지 않습니다. 공기가 맑아야 닭이 병에 걸리지 않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또한 아버지와 저의 ‘안벽한 분업’도 경쟁력입니다. 전국 및 하림농가협의 회장직을 맡고 계신 아버지는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질병관리와 대외업무 전반을 맡아주시고, 저는 현장에서 닭을 직접 키우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조화가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Q5. 사육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처음 농장에 와서 키웠던 닭들이 성적이 아주 좋게 나왔을 때의 짜릿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또 2018년, 하림의 지원으로 미국 ‘알렌 하림(Allen Harim)’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것도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넓은 시야를 갖게 해 준 고마운 기회였죠. 물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정전 사고로 폐사가 발생했을 때나, 경험 부족으로 질병을 빨리 캐치하지 못했을 때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쌓여 지금의 대처 능력을 키워주었다고 생각합니다.

**Q6. 앞으로의 목표와 소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장은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 ‘내실’을 다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본을 단단히 한 후에 20만 수까지 규모를 키워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소비자분들께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키웁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AI 특별방역기간에는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닭을 식탁에 올리겠습니다. 하림 닭고기,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 “K-푸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민관 협력 본격화

수출기획단 간담회 참석... 현장 중심 수출 전략 및 글로벌 시장 확대 방안 논의



우리 회사는 지난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2026년 제1차 K-푸드 수출기획단’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K-푸드의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권역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와 유관기관, 수출기업 등 총 29명이 참석해 각 권역의 소비 트렌드와 시장 진입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실제 수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우리 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안을 적극 제언했다. 권역별 소비 성향을 고려한 제품 차별화와 현지 마케팅 강화를 비롯해 유통 채널 다변화, 물류·통관 지원 고도화, 안정적인

콜드체인 구축 확대의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했다. 또한, 중동·유럽 등 신규 시장 진출 시 겪는 인증 및 규제 대응 지원을 요청하며 현장 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주요 권역별 전략 품목 마케팅 방향과 함께 ‘K-푸드 대사’ 현지 홍보, 수출바우처 확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이 공유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과 현장 경험을 연결하는 뜻깊은 소통이 이루어졌다.

수출기획단 자문위원 이용현 본부장은 “하림은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을 지속 추진하여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위상 제고와 K-푸드 세계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했다.

새내기자 | 남다빈 대리

## 2 2026 HBH 킥오프, “생산성과 품질 두마리 토끼 잡는다”

생산성 및 품질 고도화 총력전



우리 사육사업부가 계열 농가의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2026년도 HBH(Harim Behavioral Habit) 활동의 뜻을 올렸다.

우리 사육사업부는 지난 26일 하림지주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및 사육 농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HBH사육 생산성 개선 활동 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생산성과 생계 품질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금액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탁월한 성과를 낸 우수 농가에 대한 시상도 먼저 진행됐다. 2025년 한 해 동안 강도 높은 개선 활동을 펼친 결과, 당초 수립한 생산성 개선 목표를 105% 초과 달성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이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6개 우수농장을 선정하여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우리 사육사업부는 올해에도 육계·삼계·토종닭 농장 중

중점 관리 농장을 선정하여 생산성 및 품질을 한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번 활동의 핵심 전략은 ICT 기반 정밀 사육이다. 농장 내 CCTV와 온도·습도 로거 등을 활용해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 및 시각화하고, 최적의 환기 매뉴얼 제시 및 원격 제어 시스템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강현 사육사업부장은 “HBH 활동은 생산성과 품질 관리를 통해 농가의 수익성을 높이고 회사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생 프로젝트”라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사양 관리로 압도적인 생산성을 증명해 내겠다”고 밝혔다.

새내기자 | 강승현 사원

3

### 2026년 ‘아침머고’ 조식지원에 8년 연속 운영... 아이들의 든든한 아침 책임진다

올해 2,760만 원 전달... 8년간 누적 후원금 약 2억 1,360만 원



우리 회사는 지난 12월 오전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월드비전, 익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아침 결식이 우려되는 지역 초등학생들을 위한 ‘2026년 아침머고 조식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2,76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호석 대표이사와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월드비전 전북사업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아침머고’ 조식 지원 사업은 가정 형편이나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아침 식사를 거르기 쉬운 아동들에게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학교 적응을 돕는 하림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하림은 지난 2019년 첫 지원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8년째 이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올해 하림이 전달한 후원금은 2,760만 원으로, 지난 7년간 지원한 약 1억 8,600만 원을 더하면 누적 후원금은 총 2억 1,360만 원에 달한다.

이번 후원금은 익산시 관내 익산초등학교, 이리초등학교, 이리동북초등학교 등 3개 학교의 조식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된다. 하림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주 5일 매일 아침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는 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한다.

정호석 (주)하림 대표이사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끼니 걱정 없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우리 아이들의 아침을 책임져 준 하림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 기업과 기관의 이러한 상호 협력은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새내기자 | 백의철 차장

4

### “가정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 하림, 초등 입학 자녀 둔 임직원에 ‘응원 선물’

임직원 자녀 55명에 학용품 세트·인형 꽃다발 등 응원 선물 전달



우리 회사는 지난 12월 익산 본사에서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입학 축하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뜻 깊은 순간을 맞이한 임직원들을 축하하고, 회사가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아 기획됐다. 올해 지원 대상은 본사 및 외부 사업장 근무 임직원 54명의 자녀 총 55명이다.

지난 12월 오전 본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정호석 대표이사를 비롯해 생산·관리 부문 임직원 대표 6명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나눴다. 참석하지 못한 임직원들에게는 각 가정과 사업장으로 선물이 별도 배송됐다. ‘입학 선물 꾸러미’는 학교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들로 알차게 채워졌다. 노트, 연필, 색연필, 크레파스 등으로 구성된 ‘학용품 종합세트’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인형 꽃다발’이 전달돼 자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선물 상자에는 정호석 대표의 진심 어린 응원이 담긴 메시지 카드가 동봉돼 감동을 더했다. 정 대표는 편지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은 아이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설레는 첫걸음이자, 부모님에게는 그동안의 사랑과 정성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라며 입학 축하했다.

이어 “회사는 이 소중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임직원 여러분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며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물을 전달받은 한 직원은 “아이에게 꼭 필요한 학용품과 회사 대표님의 격려 메시지까지 챙겨주는 세심한 배려에 애사심을 느낀다”며 “아이가 선물을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니 부모로서 매우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새내기자 | 백의철 차장

5

### 현장 맞춤형 SFA 고도화로 영업 효율 ‘UP’ 결품·이력제·배차 현황 등 거래처 직접 조회 기능 확대



우리 회사는 새롭게 도입한 영업 웹주문시스템(SFA)의 현장 안착을 위해 거래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3일, 하림지주 최인경 전무와 하림 김창환 디지털혁신센터장 등은 수도권 동부지점 총판 인증대리점인 ‘대명푸드’를 직접 방문해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수집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디지털혁신팀은 즉각적인 개선에 돌입,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3대 핵심 항목을 ‘Quick Win(단기 성과)’ 과제로 선정해 고도화 및 배포를 완료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시스템 조회 권한을 거래처에 직접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소통 과정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대폭 높인 것이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주문 대비 결품 내역을 거래처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결품현황 고도화’ ▲차량 도착 전에도 이력번호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축산물 이력제 출고관리’ 기능 구현 ▲배송 차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차량별 배차현황’ 개선이 포함되었다. 세 가지 항목 모두 거래처가 직접 로그인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과 기능이 확장되었다.

디지털혁신팀 심형준 과장은 “거래처 직접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영업 현장의 전반적인 업무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영업기획팀 이윤성 과장에게 수정된 화면의 검증을 요청하며, 영업사원들을 통해 각 거래처가 개선된 시스템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가이드와 지원을 당부했다.

우리 회사는 이번 대명푸드 방문 성과를 발판 삼아 향후 주요 거래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신규 SFA시스템이 현장에 완벽히 자리 잡을 때까지 현장의 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새내기자 | 송다운 대리

6

### 사육본부, 사육 혁신 컨트롤타워 ‘사육혁신팀’ 신설 AI·빅데이터 활용한 ‘스마트 양계’ 본격화



우리 회사 사육본부가 육계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우리 사육본부는 지난 2일부로 사육본부장 직속의 ‘사육혁신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기존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사육 방식을 ‘데이터와 과학’ 중심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생산성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육본부의 의지가 담겼다. 새로 출범한 사육혁신팀은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 분석과 R&D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사육 혁신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주요 임무는 통합 관제 센터(Control Center) 개발 및 운영, 성적 부진 농가 맞춤형 컨설팅, 현장 적용형 R&D 및 스마트 기술 실증, 대외 협력 창구 일원화 등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이다. 하림과 유니아이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팜 플랫폼을 활용해 농장 내 온도, 습도, CO2 등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활동에도 주력한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표준 사육 매뉴얼’을 정립하여 보급하고, 성적이 부진한 농가에는 데이터를 근거로 한 ‘집중 컨설팅’을 제공해 전체 농가의 성적을 상향 평준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육혁신팀장으로 선임된 박진언 차장은 “사육혁신팀은 하림의 사육 시스템이 ‘직관’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진화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새내기자 | 강승현 사원

7

### 신선 원가개선 T/F 본격 가동... 원가 경쟁력 강화 나선다

생산 부문 자체 실행으로 기틀 마련 후 유관부서 협업 통해 전사적 원가개선 확대



생산부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신선 원가개선 T/F'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T/F는 자재 손실 최소화, 공정 개선, 설비 효율 극대화, 불량률 감소,

에너지 절감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먼저 1차적으로 생산 부문 자체 실행을 통해 기틀을 다진 후, 2차적으로 유관 부서와의 협업을 거쳐 원가 개선 활동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적 목표를 세웠다.

T/F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를 기본으로 최소 격주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최근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총 43건의 과제를 발굴해 월 1억 500만 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데이터 분석과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개선부터 중장기 과제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차대진 본부장은 T/F 운영과 관련해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 수립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특히 "제조원가를 줄이더라도 품질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최우선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확실하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는 생산 부문을 넘어 전사적인 차원으로 원가 개선 T/F를 확대해 나가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T/F는 이러한 당부 사항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도출된 실행 결과와 우수 사례를 적극 공유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생산부서는 앞으로도 원가를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닌 회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통해 전사 수익성 강화에 크게 기여해 나갈 것이다.

새내기자 | 김현민 대리

8

### 산재예방역량 및 안전문화의식 향상 안전교육 실시

유관기관 지원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



우리 회사는 지난 11일 본사 3층 에그시어터에서 협력사 사업주 대상으로 '산재예방역량 및 안전문화의식 향상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임직원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 과정은 고용노동부 익산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관계 기관과 회사 경영진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CSO)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직접 강의를 맡아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전달했다.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사항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과 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경영진과 관리자들이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안전보건팀 전재현 사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임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고령군 익산지청장은 "기업과 협력사가 하나 되어 안전보건역량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것은 중대재해 예방의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라며, "근로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기관으로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의 뜻을 밝혔다.

새내기자 | 송다운 대리

9

## “명절 뱃살, 맛있고 간편하게 뺀다”... 하림, 축축한 ‘수비드 닭가슴살’ 식단 제안

하림, ‘조리 과정 0’ 냉장 수비드 공법으로 승부수... “퍽퍽한 식단은 옛말”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한 19일, 식품업계가 명절 기간 불어난 체중을 관리하려는 이른바 ‘급찔급빠(급하게 찌 살 급하게 빼기)’족 공략에 나섰다. 특히 올해는 연휴 직후 조리 피로도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별도의 조리 과정 없이 섭취 가능한 ‘초간편 식단’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 회사는 이 같은 트렌드에 발맞춰 해동 없이 바로 섭취할 수 있는 ‘하림 냉장 수비드 닭가슴살 5종’을 전면에 내세우며 포스트 명절 시장 선전에 나섰다.

에 나섰다.

이번 제품의 핵심 경쟁력은 ‘냉장 유통’과 ‘수비드 공법’이다. 기존 냉동 닭가슴살이 섭취 전 장시간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 조리가 필수였던 반면, 이 제품은 포장만 뜯으면 즉시 섭취가 가능하다. 바쁜 직장인과 학생들의 ‘시성비(시간 대비 성능)’ 니즈를 정확히 파고들었다는 평가다.

자체 개발한 수비드 공법을 적용해 닭가슴살의 고질적 단점인 퍽퍽함을 해결했다. 진공 포장 상태로 저온에서 장시간 익혀 수분 증발을 차단, 닭다리살에 버금가는 축축한 식감을 구현했다. 이는 식단 관리를 처음 시작하거나 퍽퍽한 식감 때문에 중도 포기했던 소비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품 라인업은 맛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2030 세대의 취향을 반영해 ▲오리지널 ▲블랙페퍼 ▲바질&올리브 ▲레몬&파슬리 ▲칠리&페퍼 등 5종으로 구성했다. 샐러드나 샌드위치 등 다양한 메뉴로 변주가 가능해 ‘지루하지 않은 식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림 관계자는 “명절 직후에는 식단 관리 의지는 높으나 조리의 번거로움 때문에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냉장 수비드 닭가슴살은 맛과 편의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제품으로, 연휴 후유증 없이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돕는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내기자 | 백의철 차장

10

## 26년 1분기 신입사원 집체교육, 25명 대상 성공적 마무리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비전과 정체성을 함께 공유한 5일간의 뜻깊은 여정



우리 회사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익산 본사와 소노벨 변산에서 25명의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26년 1분기 신입사원 집체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업무 지식 전달을 넘어, 하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신입사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하림의 비즈니스 구조와 밸류체인 전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중계·부화부터 사육, 가공, 영업에 이르기까지 각 부문 팀장들이 직접 전하는 현장의 생생한 스토리를 통해, 각자의 실무가 회사의 전체 프로세스 속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지 깊이 이해하고 탄탄한 직무 기초를 다졌다.

또한, 하림의 핵심가치를 내재화하고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CEO 특강과 하림의 식품철학 교육을 비롯해 단백질 시장의 미래 전망을 살펴보고, 신입사원들은 회사의 성장 전략에 공감하고 향후 하림의 혁신을 이끌어갈 주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가슴에 새겼다.

아울러 동기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소통과 협업의 가치도 몸소 체험했다. 바비큐 파티와 단합대회 등 화합의 장은 물론, 비즈니스 매너 및 논리적 문제해결 등의 기본 소양 교육을 통해 부서를 뛰어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조직 내에서 폭넓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했다.

교육에 참여한 특관군납팀 조영선 사원은 “회사의 비전과 사업 구조를 한눈에 이해하고, 동기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림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인재로 발돋움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새내기자 | 남다빈 대리

# 이달의 신제품

## 후랑크 소시지 3종 출시

“공부하다, 일하다, 게임하다 한 입! 닭고기라 더 맛있고 든든해요”



우리 회사가 소시지 신제품 ‘후랑크’ 3종(▲매콤후랑크 ▲마늘후랑크 ▲참맛후랑크)을 출시했다. 앞서 선보인 꼬치형 후랑크 2종(▲매콤 ▲마늘)이 지난해만 1천 만 봉 넘게 팔릴 정도로 편의점 등에서 큰 인기를 얻자 라인업을 확장했다.

신제품 ‘후랑크’ 3종은 라면에 토핑으로 얹어 먹는 등 다양한 음식에 곁들이기 좋게 꼬치를 없애고 굵기를 줄여 여러 개를 한꺼번에 포장한 것이 특징이다. 포장지를 살짝 뜯어 전자레인지에 20~30초 데우면 바로 맛볼 수 있다. 신선한 국내산 닭고기로 만들어 기름기가 적고 담백하다.

맛은 세 가지. ‘매콤후랑크’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맛있게 매운 맛을 구현했다. ‘마늘후랑크’는 마늘 향만 입힌 게 아니라 국내산 마늘 원물의 함유량을 높여 감칠맛이 풍부하다. ‘참맛후랑크’는 마늘 간장 소스에 재워 불고기 맛을 제대로 담았다.

‘하림 후랑크’ 3종은 전국 편의점과 학교 매점, PC방 간식코너 등에서 부담 없는 가격에 만날 수 있다. 데워서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밥이나 라면, 떡볶이 등과 같이 먹어도 잘 어울린다.

하림 마케팅팀 관계자는 “식욕이 왕성한 청소년과 업무로 바쁜 직장인들에게 꼬치형 닭고기 후랑크가 큰 호응을 얻고 있어 꼬치 없는 후랑크 소시지를 추가로 선보인다”며 “간편함은 기본, 맛과 영양까지 놓치지 않는 제품들을 다채롭게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 하림인이 봄을 기다리는 방법

## 참여자 소개



지속경영팀  
김은종 차장



신선BM팀  
차영환 과장



생산지원팀  
김현민 대리



외자팀  
조성현 사원



기획인사팀  
박찬우 인턴

## 1. 봄이 되면 새로 시작하거나 다시 해보는 것

지속경영팀  
김은종 차장

겨울 동안 잠시 중단했던 유산소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15층 계단을 왕복 12회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지루하긴 해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씩 등산도 해보려 합니다. 해발 500미터 이상의 산 세 곳을 오르는 것이 목표인데, 정상에서의 상쾌함을 기대하며 차근차근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신선BM팀  
차영환 과장

그동안 미뤄두었던 독서를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짧은 영상 정보 대신, 천천히 생각을 넓혀주는 책을 읽고 싶어졌습니다. 속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 이번 봄의 목표입니다.

생산지원팀  
김현민 대리

몸이 봄을 먼저 알아챈 걸까요.  
올해 목표인 테니스 대회 입상을 위해, 운동 빈도를 다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주 1회였던 운동을 2~3회로 늘리니 몸과 마음이 함께 깨어나는 느낌입니다. 운동에 집중하는 시간만큼은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봄이 오면 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게 되는데, 올해는 꼭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다. 이번 봄, 각자만의 운동 루틴 하나쯤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외자팀  
조성현 사원

날씨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야외 활동이 떠오릅니다.  
이번 봄에는 평소 관심이 있던 소형면허를 취득하고, 오토바이 라이딩을 취미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순간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입니다.

기획인사팀  
박찬우 인턴

봄을 맞아 방안 책상 위에 '이사벨라 페페'라는 식물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물을 줄 때 들리는 'प्षा아~' 하는 소리와 점점 통통해지는 잎을 바라보는 시간이 소소한 행복이 됩니다. 그동안 식물 키우기에 서툴렀던 터라 이번에는 더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곁에 두고 천천히 지켜보고 싶습니다.

## 2. 요즘 퇴근 후 꼭 하는 것

지속경영팀  
김은종 차장

퇴근 후에는 1시간씩,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력이 조금씩 늘어나니 몸도 한결 가벼워지고 자신감도 덩달아 올라가더라고요.  
운동을 하지 않는 날에는 시 관련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체력과 지식을 동시에 단련 중입니다.

신선BM팀  
차영환 과장

퇴근 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다이어리를 씁니다.  
그날 있었던 일과 느낀 점을 정리하고, 다음 날 할 일을 미리 계획해둡니다.  
이 시간을 통해 바쁜 업무와 개인적인 일상을 구분하고, 조금 더 단단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생산지원팀  
김현민 대리

퇴근 후 저의 루틴은 퇴근길에 유튜브 '모닝 루틴' 영상을 시청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하루 정리법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제 하루도 돌아보게 됩니다. 집에 도착하면 테니스나 홈트레이닝으로 그날의 스트레스를 털어냅니다. 땀을 흘리고 나면 복잡했던 생각도 함께 정리되는 기분입니다. 운동을 쉬는 날에는 드라마를 보며 휴식을 취합니다. 최근에는 일본어에 관심이 생겨 『나 혼자 끝내는 일본어 첫걸음』을 구입해 유튜브 강의와 병행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루 10~20분이라도 꾸준히 하자는 마음으로 실천 중입니다. 이런 작은 루틴들이 하루를 그냥 흘러보내지 않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외자팀  
조성현 사원

새해에 세웠던 계획들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악기 연습, 독서, 공부 등 여러 방면에서 조금씩 자기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퇴근 후의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꾸준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기획인사팀  
박찬우 인턴

오랜 시간 독립해 지내다 최근 어머니와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집 근처 금마저수지와 서동공원을 함께 산책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그 시간이 짧지만 큰 위로가 됩니다.

## 3. 나에게 봄은 ○○다

지속경영팀  
김은종 차장

나에게 봄은 마흔일곱 번째다.  
그리고 앞으로 100번째까지 채워갈 예정이다.

신선BM팀  
차영환 과장

나에게 봄은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생산지원팀  
김현민 대리

나에게 봄은 심박수를 올려, 다짐한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계절이다.

외자팀  
조성현 사원

나에게 봄은 다시 움직이게 하는 활력이다.

기획인사팀  
박찬우 인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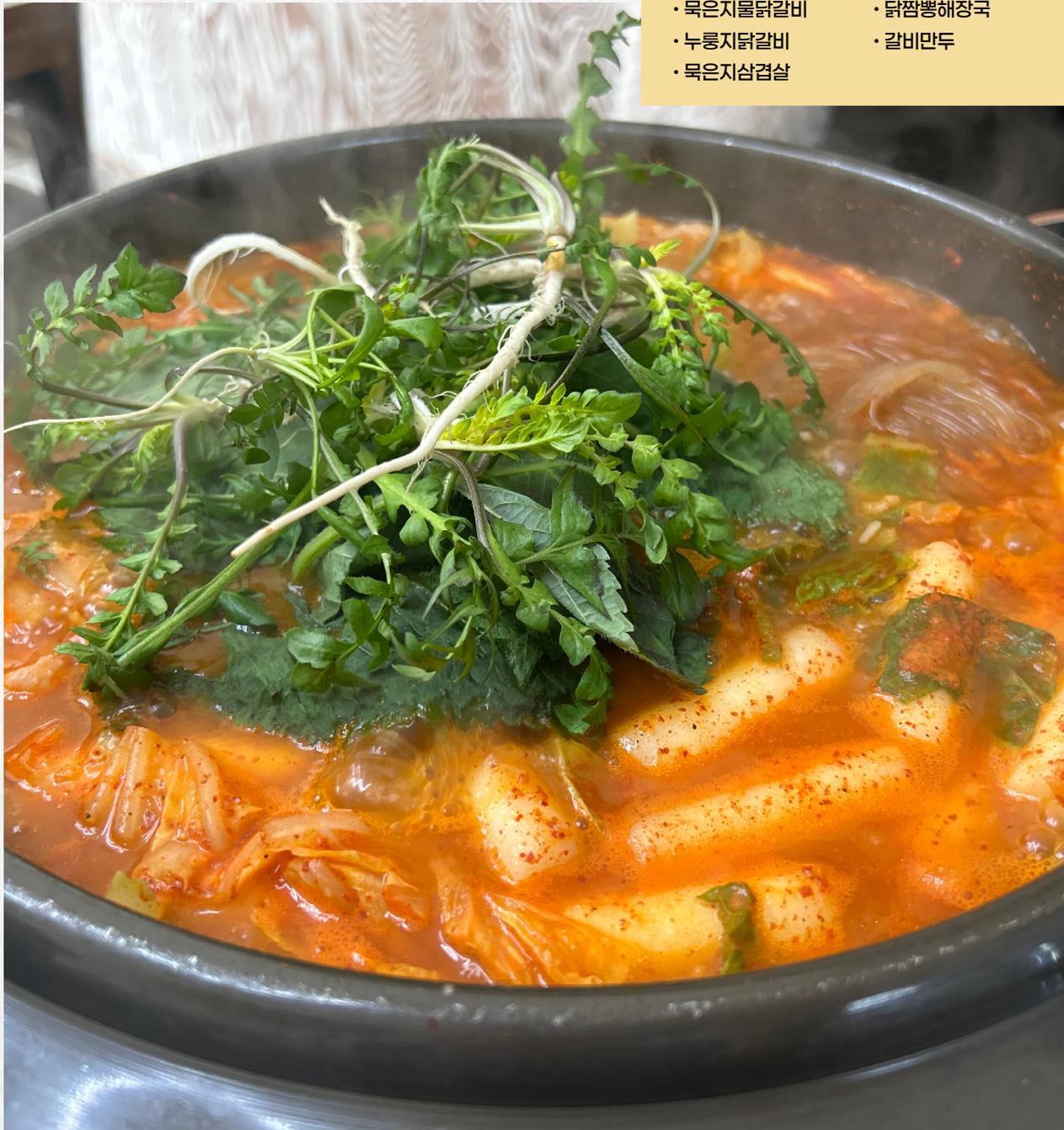
나에게 봄은 새로운 시작이다.



대전 '태백식당'

# 물 만난 닭갈비, 냉이 향 품은 자작한 국물의 매력

대전 유성구 노은역 인근 조용한 골목에는 흔히 맛보기 힘든 별미, '물닭 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태백식당'이 있다. 강원도 태백의 광부들이 고된 하루 끝에 가마솥에 물을 붓고 닭과 야채를 끓여 먹던 것에서 유래한 물닭 갈비. 춘천식 철판 닭갈비와는 달리 국물이 자작하게 있는 것이 특징인 이 이색적인 요리가 대전의 골목에서 미식가들을 기다리고 있다.



**<정보>**  
 위치: 대전 유성구 은구비로 18 125호  
 전화번호: 042)825-6005  
 영업시간: 월-토 11:30 - 22:00 (일요일 정기휴무)  
 주차: 건물 내 주차  
 편의시설 및 서비스: 예약, 단체 이용, 포장가능

**<주요 메뉴>**

- 태백물닭갈비
- 묵은지물닭갈비
- 누룽지닭갈비
- 묵은지삼겹살
- 돈짬뽕해장국
- 닭짬뽕해장국
- 갈비만두

**끓일수록 깊어지는 맛, 태백 물닭갈비**

대표 메뉴인 물닭갈비는 닭볶음탕과 닭갈비의 경계에서 텅텅함 없이 개운하고 칼칼한 맛을 자랑한다. 수북이 올라간 제철 냉이의 향긋함이 입맛을 돋우며, 사장님이 직접 양념한 신선한 순살 정육을 사용해 잡내 없이 담백하다. 국물을 머금은 부드러운 고기를 쌈무에 싸 먹거나, 쫄깃한 떡과 당면을 건져 먹는 재미도 쏠쏠하다.

**불맛과 달큰한 배추의 만남, 닭짬뽕해장국**

1인 메뉴인 '닭짬뽕해장국'은 혼밥족을 위한 최고의 만찬이다. 주문 즉시 사장님의 화려한 불쇼와 함께 조리되며, 비법 재료인 '당귀'의 독특한 풍미와 배추의 은은한 단맛이 얼큰한 국물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순살 닭고기가 듬뿍 든 깊고 시원한 국물에 밥을 말아먹으면 속까지 든든하게 채워진다.

**갈비만두로 더하고, 볶음밥으로 완성하는 미식**

매콤한 국물과 찰떡궁합인 달콤 짭짤한 '갈비만두'는 아쉬움을 달래줄 훌륭한 사이드 메뉴다. 식사의 마지막은 단연 볶음밥으로, 은근한 불에 눌러 만든 누룽지를 남은 국물에 살짝 적셔 먹으면 감칠맛이 배가된다.



1인 가게임에도 사장님의 숙련된 손놀림 덕분에 기다림의 불편함이 없다. 매일 먹는 익숙한 메뉴에서 벗어나, 재료 본연의 깊고 시원한 맛을 살린 이색적인 국물 요리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태백식당으로 향해보자.



3줄로 정리한 대전 '태백식당'

- 자각한 국물에 제철 나물 냉이의 향긋함이 더해진 이색 물닭갈비
- 불쇼로 입힌 불맛에 배추의 달큰함과 당귀 향이 어우러진 닭짬뽕해장국
- 갈비만두부터 국물에 적셔 먹는 누룽지 볶음밥까지 완벽한 풀코스 맛집

## 속도보다 방향을 배우는 중입니다

우리는 정말 빠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는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유행은 계절이 바뀌기도 전에 달라집니다. 긴 통화보다는 메시지 몇 줄로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처음 입사해 일을 시작해보니, 이런 '속도'는 더욱 피부에 와닿습니다. 모든 일이 빠르게 돌아가고, 빨리 배우고 적응해 성과를 내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더 잘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하며 타인과 스스로를 자주 비교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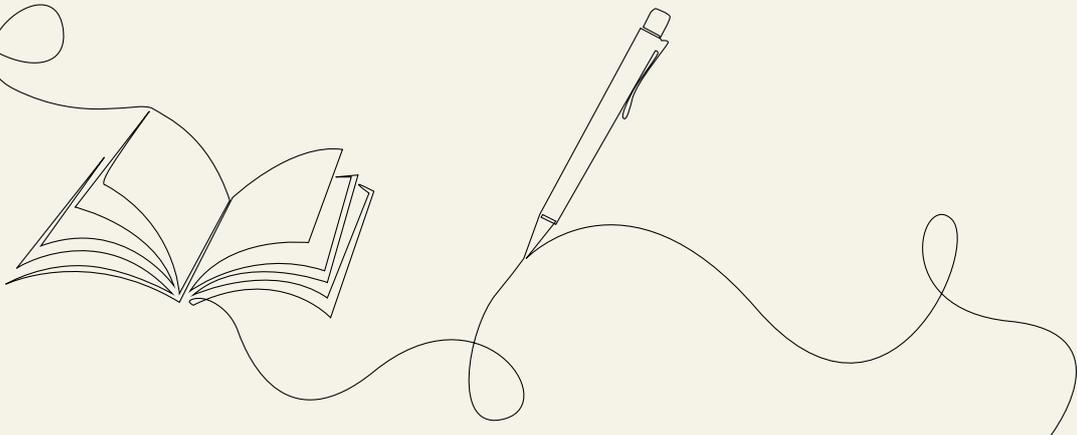
그럴 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 선택은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일까?" 요즘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중요한 건 '방향'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보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은 조급함 속에서 저 자신을 점검해보는 작은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남들보다 빠른 사람이 되기보다,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어집니다.

인상 깊게 읽은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는 큰 목표보다 매일의 작은 행동이 결국 우리를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창한 다짐보다는 반복되는 사소한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해 하루를 정리해 보는 것, 동료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는 것,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일처럼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제 나름의 방향을 잡아줄 것이라 믿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타인의 삶은 반짝여 보이고, 제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럴수록 질문은 더 단순해집니다. 나는 지금 남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의 리듬을 찾고 있는지. 오늘의 선택이 '나다움'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저만의 속도로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 그 과정이 결국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속도가 빠른 시대 한가운데서도, 가끔은 멈춰 서서 방향을 묻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결과만 바라보기보다, 과정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니까요. 남의 기준에 흔들리기보다 나의 작은 선택을 믿고 저만의 리듬을 지키는 것.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생각보다 멀리 와 있는 저를 만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내기자 | 박영선 사원



# 칭찬 챌린지



진찬양 사원 생산관리팀 → 김성겸 사원 생산관리팀



강남희 사원 생산2팀(가공) → 임수영 사원 생산2팀(가공)



임수영 사원 생산2팀(가공) → 나종운 사원 생산2팀(가공)

김성겸 사원은 항상 동료들의 안부를 먼저 챙기며 따뜻한 관심을 전하는 구성원입니다. 자연스럽게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합니다. 말수가 적은 동료에게도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팀원 간 신뢰와 소통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업무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어울리는 조직문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산2팀(가공) 임수영 사원을 칭찬합니다. 임수영 사원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개선으로 연결하며 작업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근 사용 시 바퀴가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아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바퀴 교체를 통해 작업 효율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특히 기존처럼 바퀴 4개 전체를 교체하는 대신, 구동축 역할을 하는 사이드 바퀴 2개만 교체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실행하여 더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방식은 작년 7월부터 약 120여 개의 외근에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비용 절감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현재도 월 평균 20여 개의 외근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장의 작은 문제도 놓치지 않고 개선으로 이어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칭찬합니다!

나종운 사원은 현장에서 힘들고 지저분하며 다른 사람들이 기피할 수 있는 업무도 묵묵히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맡은 역할을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과 성실함이 특히 인상적인 구성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팀에 꼭 필요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헌신 덕분에 다른 팀원들은 각자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팀 전체의 업무 흐름 또한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은 팀원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직의 효율을 높이는 든든한 역할을 해주고 있기에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새내기자 | 김지연 과장



김지연 과장 총무팀 → 심회중 사원 상온마케팅팀(가)

# 칭찬 릴레이



김선군 대리 물류팀(익산) → 박기창 사원 디지털혁신팀



이경호 인턴 노사지원팀 → 임형준 과장 환경관리(정읍)

안녕하세요. 총무팀 김지연 과장입니다. 칭찬 릴레이를 통해 상온마케팅팀 심회중 사원을 칭찬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사내 기념일 등 손길이 많이 필요한 전사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심회중 사원은 본인의 업무로도 바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먼저 나서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여러 부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구사항을 유연하게 조율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의 작은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챙겨준 덕분에 행사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보다 '우리'가 만드는 결과의 완성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타 부서와의 협업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모습에서 깊은 책임감과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함께하는 조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시길 바라며, 진심으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디지털혁신팀 박기창 사원을 칭찬합니다. 업무 중 전산 관련 문제나 문의사항이 발생하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며 항상 밝은 미소와 친절함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물류팀은 특성상 주·야간 2교대 근무를 진행하고 있어 늦은 시간에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박기창 사원은 중심을 잡아 주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덕분에 업무를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업무로 통화할 때 들려오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또한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박기창 사원께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문성과 배려를 겸비한 임형준 과장님을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우연한 기회로 정읍 공장을 과장님의 인솔하에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신입사원인 저에게 공장의 운영 체계와 업무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생소했던 환경관리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 세심하게 안내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게 건네 주신 말 한마디에는 진심 어린 배려와 응원이 담겨 있었고 이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칭찬 챌린지를 통해 과장님의 이러한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내기자 | 정진 사원

# 초보자도 할 수 있다! 프로젝트 일정 관리



## <프로젝트 일정 관리 기본 샘플>

**Jane** : Hi Lisa, **(A)** I wanted to update you about the project timeline.

**Lisa** : Sure, what's going on?

**Jane** : Unfortunately, **(B)** we're facing a delay due to a supplier issue.

**Lisa** : I see. **(C)** How long is the delay expected to be?

**Jane** : About one week. We're working to minimize the impact.

**Lisa** : Thanks for letting me know. **(D)** Have you informed the client yet?

**Jane** : Not yet. I wanted to discuss our plan first.

**Lisa** : That's a good idea. **(E)** We should prepare a revised schedule and explanation.

**Jane** : Agreed. I'll draft an update email and share it with you for review.

**Lisa** : Sounds good. **(F)** Let's make sure we also propose solutions, not just the delay.

**Jane** : Definitely. We'll highlight recovery plans and new target dates.

**제인** : 리사, 프로젝트 일정에 대해 업데이트 드리려고 해요.

**리사** : 네, 무슨 일 있나요?

**제인** : 안타깝게도 공급업체 문제로 인해 지연이 발생했어요.

**리사** : 그렇군요. 지연 기간은 얼마나 예상되나요?

**제인** : 약 일주일 정도요. 문제(영향)를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리사** : 알려줘서 고마워요. 고객에게는 이미 알렸나요?

**제인** : 아직이에요. 먼저 우리 계획을 논의하고 싶었어요.

**리사** : 좋아요. 수정 일정과 설명을 준비해야겠네요.

**제인** : 동의해요. 업데이트 메일 초안을 작성해서 검토 요청 드릴게요.

**리사** : 좋아요. 지연만 알리는 게 아니라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요.

**제인** : 물론이에요. 해결 계획과 새로운 목표 일정을 함께 안내하겠습니다



## <프로젝트 일정 관리 기본 패턴>

### (A) 지연 상황 업데이트하기

**I wanted to update you about + [주제]**

ex. I wanted to update you about the current progress.

현재 진행 상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ex. I wanted to update you about a recent change in the schedule.

최근 일정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B) 지연 상황 알리기

**We're facing + [문제/이슈]**

ex. We're facing some unexpected technical issues.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I'm afraid + [부정적인 상황].**

ex. I'm afraid the project might be delayed due to unexpected issues.

예상치 못한 문제로 프로젝트가 지연될 것 같습니다.

ex. I'm afraid we won't be able to meet the original deadline.

기존 마감일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C) 지연 기간 확인하기

**How long is + [상황] expected to be?**

ex. How long is this issue expected to continue?

이 문제가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Do you have an estimate for + [기간]?**

ex. Do you have an estimate for the completion date?

완료 예상일이 언제인가요?

### (D), (E) 조치 취하기

**Have you + [조치] yet? / We should + [조치/대안].**

ex. We should come up with a backup plan.

대안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It would be better to + [행동].**

ex. It would be better to adjust the timeline in advance.

일정을 미리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F) 해결책 말하기

**Let's make sure we + [행동].**

ex. Let's make sure we minimize the impact on the client.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We'll highlight + [강조할 내용].**

ex. We'll highlight recovery plans and new target dates.

회복 계획과 새로운 목표 일정을 강조하겠습니다.

#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사무실 책상 정리법

지금 당장 정리가 필요한 사람 자가진단

## 자가진단 시작!

- 불펜 같은 문구류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
- 책상 위에 서류, 포스트잇, 봉투 등 각종 종이가 뒤섞여 있다
- 다 마신 커피컵을 하루 이상 방치한 적 있다
- 서류를 찾느라 3분 이상 헤맨 적 있다
- ‘언젠가 쓰겠지’ 하는 물건이 많다
- 상사에게 ‘책상 정리 좀 하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
- 명함을 따로 정리해본 적이 없다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책상 정리가 필요한 사람!

업무 효율을 위한 사무실 책상 정리 TIP!

## 책상 위 정리하기



책상 정리의 첫 단계는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하는 것

책상 위에는 꼭 필요한 물건만 두기!  
지금 진행 중인 업무 관련 물품만 남기기!



## 서랍장 정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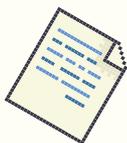
서랍 속이 정리되지 않으면,  
급할 때 필요한 물건을 찾기  
어렵다!

서랍장은 칸별로 용도를 나누어 정리하기

자주 쓰는 물건 → 상단 서랍  
가끔 쓰는 물건 → 하단 서랍



## 서류 정리하기



필요한 서류와 불필요한 서류  
구분하기!

서류를 크게 ‘진행 중’, ‘처리 완료’,  
‘임시보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면  
필요한 파일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 불필요한 물건은 휴지통에 즉각 버리기



미루지 말고 바로 버리기!  
머칠재 올려둔 머그잔, 텀블러 치우기!  
자잘한 쓰레기 바로 정리하기!

버리기만 잘해도  
정리의 절반은  
성공이다.



지금 내 책상은 어떤 상태인가요?  
오늘부터 작은 정리 습관으로 업무 효율을 높여보세요!



# 눈으로 보는 하림

2026년 2월의 주요행사 모습입니다.  
지난 추억들을 살펴보세요



**0202\_삼기부화장 리모델링 공사현장 방문**  
지난달 2일 우리 회사는 삼기부화장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방문해 현장 상황 점검을 진행했다.



**0203\_닭발 품질개선 TFT 장백 농장 방문**  
닭발 품질 개선을 위해 우수 개선 사례 농장인 장백 농장을 방문해 사양 관리 매뉴얼을 확인했다.



**0206\_컬리 경영진 미팅**  
지난달 6일 우리 회사와 컬리 경영진이 만나 2025년 리뷰 및 2026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0211\_KBS전주 정인석 총국장 일행 방문**  
KBS전주 정인석 총국장이 지난달 11일 우리 회사에 방문했다.



**0211\_고용노동부 고병곤 익산지청장 방문**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 고병곤 익산지청장이 우리 회사에 방문했다.

## 하림과 함께한 사람들



**HCR 견학객** HCR투어 신청은 하림푸드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2월에는 축평원 전복지원장, 군산지역 영양사, 순천대학교, 안성시청, 꽃동산어린이집, 광주 국세청, 일반인 등 3,516여 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 승진을 축하합니다



<b>수석부장</b>	<b>김신형</b> 전략구매실	<b>윤영해</b> 유통사업부(신)		
<b>부장</b>	<b>김재웅</b> 생산팀(김제) <b>이동연</b> 안전보건팀	<b>문일경</b> 생산관리팀 <b>정은성</b> FC2팀	<b>서정희</b> 부화팀(남산) <b>주명규</b> 특판군납팀	<b>송정환</b> 생산1팀(정읍) <b>차정운</b> 기획인사팀
<b>차장</b>	<b>김동주</b> 생산지원팀(정읍) <b>오지수</b> 총무팀 <b>이성훈</b> 준법경영팀 <b>최제일</b> 사육3팀	<b>김태규</b> 사육2팀 <b>이무열</b> 신선PM팀 <b>이윤성</b> 영업기획팀(신) <b>허왕근</b> 생산팀(김제)	<b>김현희</b> 특판팀(신) <b>이무원</b> 수출사업팀 <b>이형구</b> 외식팀(가) <b>홍지민</b> 유통영업2팀(신)	<b>양병순</b> SCM팀 <b>이상주</b> 법무개선팀 <b>정완교</b> 생산1팀(익산)
<b>기장</b>	<b>백경열</b> 생산팀(정읍) <b>조홍석</b> 공무팀(익산)	<b>이춘배</b> 생산팀(정읍)	<b>이현준</b> 공무팀(정읍)	<b>전상희</b> 바이오2팀
<b>과장</b>	<b>김대연</b> 내자팀 <b>백충호</b> 운송지원팀 <b>이승연</b> 신산개발팀 <b>최찬일</b> 사육기획팀	<b>김승우</b> 안전보건팀(정읍) <b>송락현</b> 생산2팀(정읍) <b>장대익</b> 설비구매팀 <b>하두현</b> 부화팀(김제PS)	<b>김현명</b> 식품안전팀(익산) <b>송무인</b> 유통영업1팀 <b>장재석</b> 기획인사팀	<b>김현욱</b> 호남영업팀 <b>이보람</b> 총계2팀 <b>최준엽</b> 디지털혁신팀
<b>기감</b>	<b>김명선</b> 공무팀(익산) <b>최영수</b> 공무팀(가)	<b>배성호</b> 생산팀(정읍) <b>한재학</b> 공무팀(익산)	<b>이광열</b> 생산팀(정읍) <b>황충기</b> 공무팀(정읍)	<b>이정원</b> 공무팀
<b>대리</b>	<b>곽유진</b> 온라인3팀 <b>김우빈</b> 물류팀(가공) <b>남현지</b> 식품안전팀(익산) <b>심희종</b> 상온마케팅팀(가) <b>장동현</b> CVS사업팀(가) <b>정윤철</b> 총무팀 <b>차시원</b> 개발2팀	<b>김강원</b> 전북지점(신) <b>김현민</b> 원료구매팀 <b>박영진</b> 기획인사팀 <b>오창용</b> 공무팀(가) <b>장민</b> 홍보팀 <b>정재홍</b> 경북영업팀(가) <b>최정국</b> 생산지원팀(익산)	<b>김민진</b> 생산관리팀 <b>김혜진</b> 영업기획팀(신) <b>박유민</b> 냉장마케팅팀(가) <b>유종구</b> 생산팀 <b>전옥진</b> 물류팀(익산) <b>정제석</b> 온라인2팀	<b>김봉균</b> 홍보팀 <b>남다빈</b> 기획관리부장실 <b>박주연</b> 온라인3팀 <b>임준성</b> 생산3팀(익산) <b>전재현</b> 안전보건팀 <b>지주연</b> 안전검사팀
<b>기정</b>	<b>김용현</b> 공무팀 <b>이성준</b> 공무팀(가)	<b>박태규</b> 공무팀(가) <b>이우경</b> 공무팀(익산)	<b>송대성</b> 공무팀(정읍)	<b>오연길</b> 공무팀(정읍)
<b>영양사</b>	<b>김해인</b> 네이처델리수도권운영팀 S4	<b>김민성</b> 네이처델리남부권운영팀 S3	<b>이미정</b> FS금호타이어 S3	<b>이선영</b> FS대한전선케이ابل공장 S3

## 이달의 Quiz

화이트데이는 어느 나라에서 시작된 기념일일까요?

- ① 한국
- ② 일본
- ③ 미국
- ④ 프랑스



### 정답 제출 방법

답장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하림 선물세트'를 드립니다.

**참여 시, 번호와 선택한 이유,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함께 보내주세요.**

[메일주소]  
E10202932@harim.com

### 237호 퀴즈 당첨자

정\*경 전남 광양시 성항수동로  
이\*건 익산시 금마면 동고노리  
한\*연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6번길  
한\*숙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상큼달달

진한풍미

# NEW 오!늘단백 초코바



단백질 16g

밀가루 ZERO

알콜로스 & 에리스리톨

(주) 하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063-860-2255 [www.harim.com](http://www.harim.com)